

Cutting-Edge Art Alongside: Vintage Modernist Pieces

June, 2016 | 김만나

page 1 of 6



MUINE Design

CUTTING-EDGE ART ALONGSIDE VINTAGE MODERNIST PIECES

뉴욕 맨해튼에서 앤티크 가구 갤러리, 빈티지 20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웅 대표를 만났다. 빈티지 20의 공간을 독점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전시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를 기획하면서 겪은 뒷이야기, 가구 딜러로서의 삶 등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EDITOR 김만나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 전시를 계획한 것이 5년 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이 2년 전이라 들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 피에르 잔느레는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국제갤러리에서 연례기획으로 디자인을 특화한 전시 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프랑스의 모더니즘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5년 장 프루베의 디자인 전시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샤를로트 페리앙 전시를 했었죠. 이번에 소개한 피에르 잔느레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모더니즘 디자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입니다. 장 프루베와는 막역한 친구로 작품에서도 서로 크게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고, 당시 여성 디자이너로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샤를로트 페리앙과는 한때 연인 사이였어요. 잔느레와 프루베, 페리앙이 3인방은 동시대 작가로서 한 시대를 함께 지냈고, 이번 전시 곳곳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지요. 디자인에서 프렌치 모더니즘이라는 역사의 궤적을 지나온 작가들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제겐 행운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디자인 전시가 실내건축 디자인에 비중을 두었다면 잔느레와 르 코르뷔지에의 경우는 건축 외양 및 도시 프로젝트로 확대한 지점도 특별합니다. 둘의 대표적인 공동 프로젝트이자 20세기 중반, 인도의 독립 이후 진행된 산업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공간적 장소가 바로 '찬디가르'에서 펼쳐진 도시 계획 프로젝트였죠. 피에르 잔느레는 찬디가르 건축사무소의 책임자로 15년간 인도에 머무르며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감독을 총괄했어요. 작품으로는 간디 도서관을 비롯해 공립학교, 서민을 위한 다세대 주택단지들이 있어요. 당시의 건축가들이 다 그랬듯이 실내를 채우 디자인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인도의 상황에 맞춰 현지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연구했는데, 그 예로 통풍이 원활하도록 모든 건물 앞에 배란다와 현관지붕을 설계했고, 인도의 전통 공예와 재료를 접목한 가구를 디자인했어요. 장 프루베는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에 나무와 돌만 남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건축가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복원이나 배송 등에서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찬디가르 프로젝트는 코르뷔지에와 잔느레가 구현한 작업이지만, 당시 인도 정부 주최로 기획된 프로젝트이고, 주최 측에서 이 디자이너들에게 의뢰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품들은 모두 인도 정부의 컬렉션이라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협력과는 별도로 인도 정부 측의 허락을 받는 데에 지난한 시간과 과정을 거쳤죠. 또, 이들 디자인은 실제로 인도 현지에서 정부의 고위급 간부들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몇몇은 인도 외부로 처음 만들어 소개된 것이라 더욱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찬디가르 도시 개발에 따른 일련의

작품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인도 정부는 이들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없었던 셈이죠. 일찍이 이 가치를 알아본 프랑스의 디자인 갤러리들에서 이 작품들을 가져가서 판매하려 했고, 실제로 일부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후에야 이를 안 인도 정부에서 통관과 협약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반출된 모든 작품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현재는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이후로 해당 작품들을 외부 반출하는 데에 민감한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프랑스 딜러들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어서 만약 관련 전시를 프랑스에서 하려 했다면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전시는 인도 정부의 승낙 아래 방대한 컬렉션을 들여올 수 있었는데 아시아, 그중 한국의 서울에서 처음 소개한다는 것에 그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인 갤러리들이 당시의 가구를 불법으로 대량 반출해 판매했다는 이야기는요? 지난 10여 년간 바젤이나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와 같은 아트 페어 내 디자인 부스에서 앞서 언급한 프랑스 모더니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어요. 실제로 이 마켓은 프랑스 딜러들이 만들어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사견들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보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드릴게요. 2000년 초에 한 일간지에 관련 기사가 크게 게재된 적이 있는데, 프랑스 딜러들이 관광 비자로 인도에 가서 가구를 정식 협약 없이 반출했다는 보도였어요. 물론 당시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지금 소개되는 작품에 대한 가치를 몰랐고, 당시 작품들의 상태도 온전치 못했죠. 그 가치를 일찍 발견한 프랑스 딜러들이 어찌 보면 영민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인도 정부는 그 딜러들을 고소했고, 이를 계기로 이제 해외 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유연해진 것이,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1년에 두 번의 공식적인 옥션을 진행해요. 1회는 미술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다른 한 번은 일반 컬렉터를 위한 작품이 나옵니다. 50~60년 전의 가구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원한 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워낙 오래된 탓에 천이 부식된 것은 물론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문적으로 고가구를 복원하는 분이 작업을 했는데, 직접 국제갤러리 전시에 들어간 모든 작품을 탁월하게 회복시켜준 셈이죠. 르 코르뷔지에 재단과 프랑스 문화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 복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세월일 조건과 이에 맞는 자재를 구하는 것들, 서울까지 작품을 들여오는 운송 절차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시간 또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시장에 들어서면, 맨홀 뚜껑이 바닥에 의미심장하게 놓여 있습니다. 맨홀 뚜껑 하나마저도 찬디가르 건축물의 일부라 할 수 있어요. 맨홀 뚜껑일 뿐이지만 찬디가르의 지도 아래 철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섬세한 르 코르

MUINE_ Design

뷔지에의 디자인 철학을 느낄 수 있죠. 전신실에 들어서면 정면의 벽면에 4미터 크기로 붙인 국회의사당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합니다. 르 코르뷔지에가 직접 그린 드로잉도 벽면에 붙어 있고, 모던한 패턴팅 방식을 변화로 사용하는 등 찬디가르 도시 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찬디가르에 있는 가로등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사람 허리 정도 높이인데,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 시멘트와 똑같은 자재로 만들었어요. 이번 전시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멘트로 만들어져 부식질 염려도 있고 무게가 1.5톤에 달해 가져오지 못했어요. 가로등 하나조차도 소재와 디테일에 있어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의 손길이 느껴지는 장소죠. 때문에 맨홀 뚜껑 하나 또한 하나의 조각 작품(Sculpture)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잔느레와 프루베, 페리앙 이 3인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코르뷔지에가 합체한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피에르 잔느레와 르 코르뷔지에에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동시에 멘토와 멘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르 코르뷔지에에 피에르 잔느레, 샤를로트 페리앙보다 한 세대 위의 작가라 할 수 있죠. 잔느레, 프루베,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세대이고, 르 코르뷔지에에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샤로는 당대를 주름 잡던 아르데코의 장식적인 클래식즘이 아닌 모더니즘을 추구했고, 르 코르뷔지에에 시대에 절정을 맞이한 프랑스 모더니즘의 시조라 볼 수 있어요. 피에르 샤로가 디자인한 가구와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철재와 목재 사용이 많아요. 간혹 대리석과 같은 재료도 일부 사용했지만, 아르데코의 클래식즘에서 사용한 악어 가죽, 상어가죽 같은 재료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했죠.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고, 이러한 영향이 피에르 잔느레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들은 나무, 철과 같이 매우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재료를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으로 사용한 셈이죠. 지금도 르 코르뷔지에의 고유한 건축 자체이자 언어로 노출 콘크리트를 꼽는데, 소재 자체는 단순했지만 이를 건축물 디자인에 접목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혁신적이었죠.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바우하우스 운동에 비해 프랑스 모더니즘은 생소한 편이지만, 바우하우스만큼 매우 진보적인 편이 있었죠.

프랑스 모더니즘 시대를 이끈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빈티지 20을 운영하면서 프라이빗 파니저 딜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 순간이 있었나요? 제게 그런 사람은 장 프루베입니다. 장 프루베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가 1994년이예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크리스토퍼 벤더웨이라는 아트 딜러가 있었죠. 티나 김(뉴욕에서 '티나 킵 갤러리'를 운영하는 정재용 대표의 부인)과 나와 셋이 같이 페퍼다인(Pepperdine) 대학에서 만났어요. 제가 파슨스로 옮기기 전까지 함께 어울렸죠. 크리스토퍼 벤더웨이는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을 하던 시절에 내게 꼭 보여줄 가구가 있다고 초대해줘서 그의 집에서 본 것이 장 프루베의 책상이었어요. 그의 이름만 알고 있었지, 직접 가구를 본 것은 1994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서재 한쪽에 프루베와 관련된 책을 따로 모아두었는데, 아마 프루베에 관해 세상에 나온 책들 대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재용 대표님의 청년 시절이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빈티지 20의 대표가 되셨나요? 건축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퍼킨스 윌(Perkins+Will)이라는 건축사무소에서 4년 정도 일했어요. 사무실이 건축물 맨 위층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했는데, 2001년 9.11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그 사무실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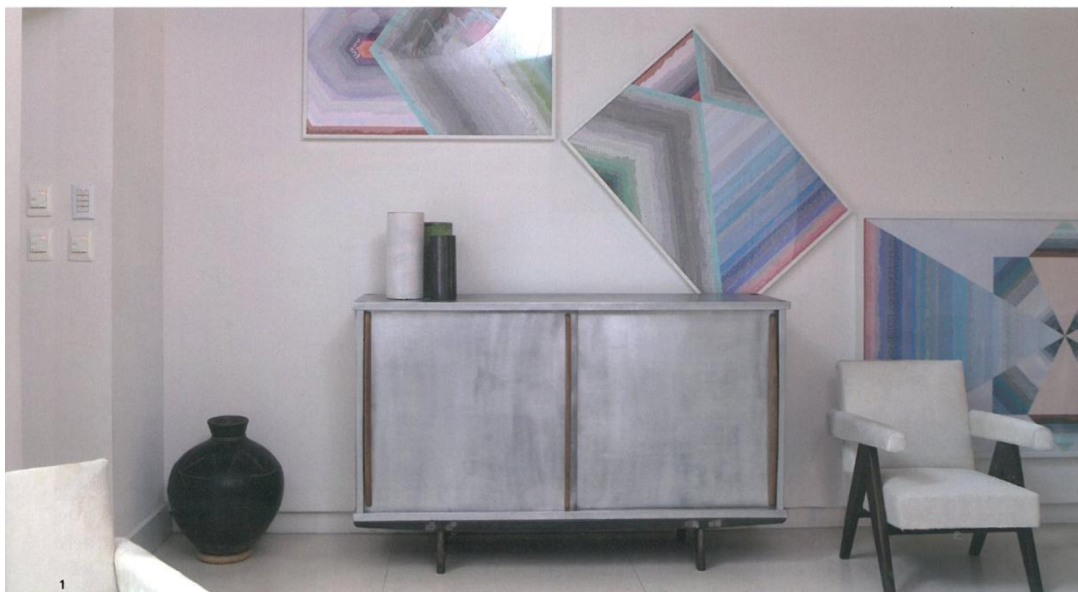
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겠다고. 이후, 동료와 함께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4년 정도 일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의 경험이 현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로서의 삶에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당시 건축사무소에서 일할 때 뉴욕에서 진행되는 건축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대부분 맨드마크 건축물이나 타운하우스 리모델링 등 큰 작업들이었어요. 저처럼 건축 사업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잡을 수 없는 꿈의 프로젝트였죠. 결국 주로 실재를 리노베이션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치가 높은 엔터티 가구였죠. 당시에는 아트 작품을 다루는 딜러는 있어도, 가구를 다루는 딜러는 많지 않아 직업 자체가 아주 희귀한 편이었죠. 이후 건축사무소를 닫고, 당시에 갤러리를 경영했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가구를, 티나 김은 아트 작품을 다루는 딜러로서 활동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의 가구 디자인 경력과, 건축 사무소를 경영한 경험이 합쳐져서 지금의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린 것 같아요.

뉴욕이라는 공간에서의 첫 시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앤서니 도페라고, 런던에서 활동하는 전설적인 딜러가 있었어요. 뉴욕에 아주 작은 회랑을 갖고 있었는데, 그곳의 디렉터 중 한 명이었던 제인스 코한(James Cohan)이라는 분이 사용하던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걸 또 반으로 나누어서 사무실로 사용했죠. 티나 김은 전시 공간으로, 저는 건축사무소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유럽의 도시들뿐 아니라 뉴욕에도 디자인 가구를 소개하는 갤러리가 많습니까. 그중에서도 빈티지 20에서는 유럽의 20세기 가구와 장식예술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요. 장 프루베를 비롯해 프랑스 모더니즘 시대를 완성한 시절의 디자이너들에게 언제부터인가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구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프랑스 낭시에 가서 장 프루베의 집을 봤을 때의 감동, 국제갤러리에서 프루베 전시를 했을 때 그의 딸인 캐서린 프루베가 서울에 와서 함께 강의를 한 순간들이 모두 생생해요. 이번엔 피에르 잔느레 전시를 준비하면서 찬디가르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찬디가르는 하나의 삶이 있는 뮤지엄 같았어요. 과거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다가가고, 이들을 어떻게 공간에 구현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간에서 전시를 선보이는 것도 제가 공부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더욱 느끼게 되었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티나 김이 현대미술 작품을 다루는 상업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르네상스 시절의 가구보다는 현대미술사, 현대 디자인 역사와 연결되는 디자인과 가구를 선보이는 것이 제겐 너무 당연한 일이죠. 현대미술 애호가들의 또 다른 니즈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전시가 한국에서는 아직 드문 편이라,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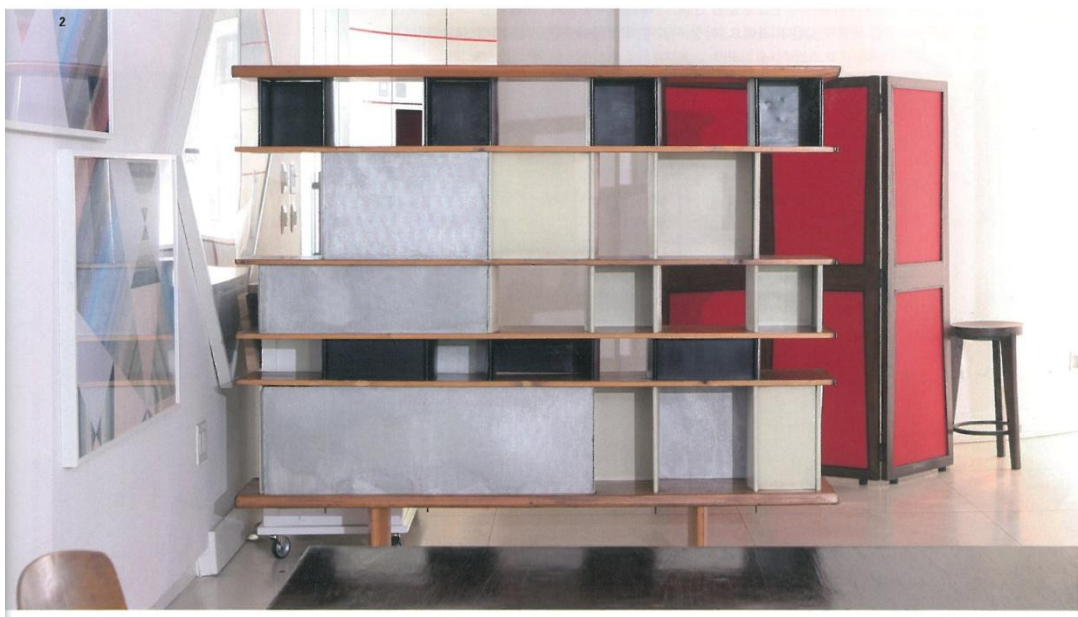
한국에는 디자인 가구 시장이 아주 최소한 편인데요. 디자인 마이애미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가구 갤러리가 각 도시별로 많은데요. 추천해주실 만한 갤러리가 있다면요? 프랑스 파리의 카펜터스(Carpenters) 갤러리를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현대 디자인 가구를 취급하는데, 디자이너들 관리나 페이퍼 나가는 규모가 잘나가는 뉴욕의 미술 갤러리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프리드만 벤다(Friedman Benda) 갤러리로 나와 함께 2011년에 국제 갤러리에서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전시를 했던 곳이에요.

현존하는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이미 작고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다루기에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구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여러모로 다를 것 같습니다. 빈티지 20은 젊은 디자이너들, 카펜터스나 벤다 갤러리와 같은 상업 디자인 갤러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가구를 전시한다는 것은 고충도 쉽지 않고 복원, 관리 매뉴얼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모마와 같은 미술관도 장 프루베의 오리지널 가구를 서너 점밖에 갖고



1

12005년 뮌헨에서 빈티지 20을 설립한 정재용 대표는 유럽의 20세기 가구와 장식예술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벽의 그림은 양혜규 작가의 신용양호자들 연작, 장 프루베의 메탈 소재 테이블과 피에르 잔느레의 의자, 조지 주브의 팔아리가 놓여 있다. 21960년, 장 프루베와 샤를로트 페리앙이 협업한 책장.



2



1 파리 5구 장 드 보베(Jean die Beauvais)가에 위치한 장 프루베가 1954년에 지은 아파트. 장 프루베의 딸, 캐서린 프루베(Catherine Prouve)가 거주하고 있다. 2 캐서린 프루베와 정재웅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 3 테미안 허스트의 회화 작품과 장 로이에의 소파. 장 프루베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빈티지 20의 풍경.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있지 않아요. 거장들의 디자인 작품으로 기획전을 1년에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는 화랑은 많지 않은 편이라, 그 자체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엔 수많은 디자인 갤러리가 있지만, 그들 각자가 모두 콘셉트와 방향이 명확합니다. 빈티지 20은 알고는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작품들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디자이너들의 시대를 한국에 알릴 수 있길 바라요.

한때 가구 디자인을 했던 이로서 만약 다시 가구를 디자인한다면 어떤 가구를 만들고 싶은가요? 신혼 살림을 시작할 때 가구를 제가 직접 디자인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죠. 당시에 멕시코인 친구의 주물 공장에서 모두 만들어 가져왔는데 주재료가 철이어서 아주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 제가 생각하는 가구 디자인의 근본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자하 하디드 건축가는 가구 디자인에서도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사용한 재료를 보면 실리코어나 레진(Resin)이에요. 독특한 재료로 독특한 형태를 만든 것이죠. 현재 다루고 있는 프랑스 모더니즘과는 아주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는 신소재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엔 일본 체어로 유명한 요리스 라만의 작품을 많이 받죠. 전체 의자의 구조가 하나로 연결된 3D 모델 조각과 같은 의자예요.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디자이너는 마크 뉴슨. 당시도 멋있었지만, 현재는 그도 근사하죠. 기회가 된다면 국제갤러리에서 마크 뉴슨의 전시를 기획해보고 싶어요.

신혼 시절부터 결혼기념일,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부부의 컬렉션을 늘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 쪽을 공부해서 아트 쪽엔 무지한 편이었죠. 아내를 통해 점점 순수미술 분야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첫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피카소 뮤지엄 등 유명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게 신혼 시절의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폴라 쿠퍼(Paula Cooper) 갤러리에서 일할 때 결혼 1주년을 맞이했죠. 아내한테 무얼 갖고 싶은지 물어보았는데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첫 컬렉션이 매튜 바니의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는 로버트 고버(Robert Gober)의 프린트 작품이었고, 세 번째는 아내가 큐레이팅한 루돌프 스티켈(Rudolf Stingel)의 작품이었어요. 티나 킴이 처음으로 국제갤러리에서 큐레이팅한 작가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티나 킴이 폴라 쿠퍼에 있을 때 작가를 처음 만났었는데, 당시엔 그 작가의 작품을 세 번째 컬렉션으로 구입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씩, 조금씩 의미 있는 날에 작품을 컬렉션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공통된 즐거움이에요.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

태양의 도시를 꿈꾸었던 두 천재 건축가의 한 사람이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된다. 찬디가르(Chandigarh)는 인도가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며 야심 차게 기획했던 국제 도시. 국제갤러리 2관에서는 8월 29일까지 피에르 잔느레의 오랜 협업자이자 사촌인 르 코르뷔지에와의 공동 작업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 작품으로는 당시 프로젝트에서 실내 건축에 사용된 가구와 공공 디자인 작품인 간이침대, 서랍장, 소파, 도서관 책상 등이 있다. 프랑스의 모더니즘 디자인 시대를 풍미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던 피에르 잔느레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장 프루베와는 막역한 친구로 작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당시 여성 디자이너로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샤를로트 페리앙과 한때 연인 사이였다. 피에르 잔느레는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찬디가르 프로젝트에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참여해 15년간 찬디가르 도시 내의 행정과 공공 건물의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 가구 디자인 및 제작을 진행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찬디가르를, 인도를 사랑했다. 찬디가르 건축학교의 교장으로서는 현지인들에게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을 알렸던 그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 주의 수식 건축가 및 도시계획연구팀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인도의 순차적인 도시 개발에 따라 델리 남부에 위치한 선더나가르(Sunder Nagar)와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최대의 도시 아메다바드(Ahmedabad) 등 다른 도시의 계획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피에르 잔느레는 1965년, 건강이 악화돼 고향인 제네바로 돌아갔으며 이듬해 1966년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찬디가르의 수크나 호수에 뿌려졌다.

이번 전시는 빈티지 20의 정재웅 대표가 기획했다. 정재웅 대표는 국제갤러리에서 <장 프루베>(2005), <샤를로트 페리앙>(2007), <요리스 리만>(2011), 일렉신더 칼터 재단과의 협업으로 개최한 <칼터 주얼리>(2014) 등으로 독창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1 국제갤러리 2관에서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리고 있는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인도 찬디가르 1951-66> 전시 전경. 2 인도 찬디가르에서 르 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 © FLC/ADAGP, 2016. 3 도서관 책상(Library Table), ca.1960, 108(H) × 243,8(L) × 121(D)cm, 사진:Keith Park. 4 '롱나무' 커피테이블('Tree Trunk' Coffee Table)과 '캥거루' 의자('Kangaroo' Chairs), 사진:Keith Park.

